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남재우¹, 최영근^{2*}

¹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²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Programs

Jae-Woo Nam¹, Young-Keun Choi^{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대학에서 운영하는 17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업연계, 상담, 자격증, 채용지원, 특강 등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최근 취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보통 이상의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별로는 자격증, 취업지원, 해외, 특강, 상담, 기업연계 관련 프로그램의 순으로 유용성이 높게 집계되었다. 이중 기업연계, 특강, 상담 관련 프로그램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용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취업지원센터는 신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기업연계, 특강,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주제어 :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센터, 대학생 취업, 취업교육, 대학 취업정책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provided by the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center was evaluated. To this end, the 17 employment support programs operated by K University were divided into six dimensions, including corporate linkage, counseling, certification, employment support, and special lectures. As a result, all employment support programs were found to have more than average usefulness. By dimension, the usefulness was counted in the order of certification, employment support, overseas, special lectures, counseling, and business-related programs. Among them, programs related to business connection, special lectures, and counseling were analyzed as factors that increased the overall usefulness of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erefore, when planning a new program for the employment support center, it would be a desirable direction to plan programs related to business connection, special lectures, and counseling first.

Key Words : Employment Support Program, Employment Support Center, College Student Employment, Employment Education, University Employment Policy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Young-Keun Choi(ykchoi@kku.ac.kr)

Received October 20,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November 16,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학은 공교육 제도를 벗어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토대로 전공을 선택해 입학한 고등교육기관이다. 국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2.5%로 매우 높으며, 고등교육 이수율은 50.5%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1, 2].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은 보편화되었으며, 대학교육은 성인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학생들은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을 위해 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3.3%(2019년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10명 중 약 6명이 취업을 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 중 대학 이상을 졸업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23.6%(2020년 기준)에 이른다[3]. 또한, 취업자 통계에는 진학자, 단기취업자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결국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하는 대학 졸업자는 적을 것이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진로교육법,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제정해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14조에서는 대학이 진로교육을 할 수 있고 관할기관인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대학이 이 법에 근거해 다양한 진로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정부의 대학생 취업지원 정책인 대학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관련 사업, 대학재정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취업지원 기구를 설치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4]. 대학의 취업지원 기구는 취업지원센터, 경력개발센터, 인재개발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이하 취업지원센터)되었으며, 진로 및 취업상담을 포함하여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면접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진로교육은 대학기능에 정착되고 외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제도화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취업환경에 따라 적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학생지원이 미흡하다는 연구와[5]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학생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 또한, 대학의 취업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진로지도 전문가를 충원하고 산업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7].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취업교육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이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으로 세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지는 않았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대 학교 취업지원센터의 사례를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좀 더 구체적인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3년간 지속해서 시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17개를 대상으로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근 취업한 졸업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취업성공자의 시각에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2.1 기업연계 프로그램

기업연계 프로그램은 「대학생 성공취업 공모전」과 「저학년 취업로드맵 수립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성공취업 공모전」은 특정 산업, 기업,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직무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전으로 기업과 연계해 10주 동안 팀별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저학년 취업로드맵 수립과정」은 특정 기업 및 직무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 생활 동안 수행해야 할 취업로드맵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팀 단위로 진행되며, 목표 직무 및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현직자 인터뷰 및 기업분석을 통해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2.2 상담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은 「개인별 진로상담」과 「FOCUS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별 진로상담」은 전문자격을 보유한 진로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목표 진로를 설정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교육을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휴학, 대학원 등 학교생활 관련 고민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공모전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FOCUS 상담」은 취업교과목과 연계하여 수강생 전원이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겸임교원들과 1:1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겸임교원은 학위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산학전문가로서 전문 취업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2.3 자격증 프로그램

자격증 프로그램은 「융합 직무역량 트레이닝 프로그램」 및 「M.V.P(Major Value up Program)」,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융합 직무역량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직무역량 및 융합 직무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톨 자격증 및 영업, 마케팅 등 직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M.V.P」는 전공 관련 직무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제 선정에서 실제 프로그램 운영까지 각 학과에서 직접 운영하며, 취업지원센터는 행정적 지원과 전체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지원」은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교육비(70%) 및 응시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4 채용지원 프로그램

채용지원 프로그램은 「미취업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동행 프로젝트」, 「엘리트 프로그램」, 「AI 모의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업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미취업 졸업생을 위해 외부 취업 컨설턴트를 통한 1:1 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등을 지하고 있다. 비대면 컨설팅 방식으로 약 5개월 진행되며 최종 취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취업동행 프로젝트」는 4학년 대상 단기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4주 동안 취업 관련 교육(직무분석, 기업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등 취업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기간 취업지원센터의 밀착관리를 통해 실제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엘리트 프로그램」은 4학년 대상 장기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4주 취업 관련 교육 이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실 취업자 배출 및 취업 우수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취업자는 이후 졸업생 멘토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AI 모의면접」은 최근 채용 프로세스 변화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에서 2020년부터 도입한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I 화상면접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면접을 체험하고 연습을 할 수 있다. 추후 실제 면접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

Table 1. Performance of K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center (2018-2020)

program	target	number of participants (2018-2020)
college student success employment contest	4 grade	185
establishment of low-grade employment roadmap	1-3 grade	102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all grades	3,139
focus consultation	2 grade	3,328
convergence job competency training	all grades	475
M.V.P	all grades	2,380
certificate acquisition support project	all grades	379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for the unemployed	4 grade	191
job accompanying project	4 grade	127
elite program	4 grade	86
AI mock interview	all grades	319
industrial vocational school by college	all grades	1,208
graduate employment mentoring	all grades	4,888
employment week	3-4 grade	1,648
overseas Internship	2-4 grade	39
K-move School	4 grade	82
overseas Employment Reserve Training Course	all grades	139
sum		18,715

2.5 특강프로그램

특강프로그램은 「단과대학별 산업직무스쿨」과 「졸업생 취업멘토링」, 「취업WEEK」로 구성되어 있다. 「단

과대학별 산업직무스쿨」은 각 단과대학별 유관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를 섭외하여 실무 및 취업 역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생 취업멘토링」은 각 학과별로 진행되며 해당학과의 우수 졸업생을 섭외하여 전공 관련 진로설정 및 직무관련 멘토링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단과대학별 산업직무스쿨」과 「졸업생 취업멘토링」은 각 단과 및 학과가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취업지원센터는 주관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 WEEK」는 하반기 공채를 대비해 주요 직무별 취업 트렌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이다. 영업, 마케팅, 생산/품질관리, 디자인 직무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간접 체험하고 실제 필요한 직무역량에 알게 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6 해외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은 「해외인턴십」과 「K-Move스쿨」, 「해외취업 예비인력 양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인턴십」은 재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 미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6주~8주간 인턴십을 진행하며, 글로벌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K-Move스쿨」은 약 600시간의 직무 및 어학 교육을 거쳐 졸업 후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이후 실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취업 예비인력 양성과정」은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인재를 사전 육성하기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약 5주 동안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전·사후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교육과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프로그램은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해외취업 예비인력 양성과정」수료자는 「해외인턴십」과 「K-Move스쿨」에 참여해 실제 해외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최근 4년제 사립대학인 A대학교를 졸업

하고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019년 8월~2020년 2월 졸업생). 이는 취업자의 시각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보다 정확한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12일부터 16까지 총 5일간 온라인 설문도구로 진행했으며 기존 교내에 확보된 개인 전화번호를 이용해 설문조사 URL을 SMS 전송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요청하였다. 온라인 설문도구의 기능을 통해 중복응답을 방지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높였으며, 응답 보상으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여 응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지의 첫 페이지에는 조사목적과 설문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응답자 스스로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총 782명의 모집단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최종 수집된 데이터는 338개이다. 이 중 48개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90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으므로 표본집단의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G*Power 3.1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중간 효과 크기 .15, 예측변수 6개 기준에서 최소 표본수는 146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통계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수는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설문지에서 학번과 소속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 측정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용성

유용성 평가는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기대되는 유용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에 각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술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이 없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변수의 구성을 위해 모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업연계, 상담, 자격증, 채용지원, 특강 등 6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각 차원의 이름을 변수명으로 명명하였고, 하위에 속한 각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측정하는 변수는 종속변수로서 전반적 유용성으로 명명하였다. 종속변수의 측정문항은 3개로 구

성되었고 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과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osition of tools for measuring the usefulness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variable name	content
company-linked	college student success employment contest
	establishment of low-grade employment roadmap
consulting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focus consultation
license	convergence job competency training
	M.V.P
	certificate acquisition support project
recruitment support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for the unemployed
	job accompanying project
	elite program
	AI mock interview
special lecture	industrial vocational school by college
	graduate employment mentoring
	employment week
overseas	overseas Internship
	K-move School
	overseas Employment Reserve Training Course
overall usability	Overall usefulness for the entire job application program

3.3 통계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Ver.2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취업 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한 양적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Cronbach's α 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인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4.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 분석

4.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2016학번의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서 2014학번(22.4%), 2015학번(21.4%), 2013학번(15.9%), 2012학번(4.8%)로 집계되었으며, 2010학번과 2011, 2017, 2018학번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65.5%는 2012~2015년 입학생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재학 당시 소속은 인문사회계열이 37.2%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명계열(25.2%), 디자인계열(23.1%), 과학기술계열(14.5%)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학년도 기준 A대학 각 단과대학의 입학정원은 인문사회계열 464명(정원의 30.5%), 의료생명계열 430명(28.3%), 과학기술계열 370명(24.3%), 디자인계열 258명(17.0%)이다. 입학정원 대비 응답자 소속 빈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대학 소속의 응답자가 다소 적었지만, 통계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므로 표본이 적절히 분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Respondent's year of admission and affiliation at the time of enrollment (n=290)

	division	n	%
Year of admission	2016	97	33.4
	2014	65	22.4
	2015	62	21.4
	2013	46	15.9
	2012	14	4.8
	2010-2011	4	1.4
	2017-2018	2	0.6
	Major	humanities society	108
	medical life	73	25.2
	design	67	23.1
	science technology	42	14.5

응답자는 모두 취업생으로 Table 4와 같이 54.8%가 서울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2.4%가 경기도에서, 3.8%가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81.0%가 수도권에서 근무했으며 19.0%는 국내 기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직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Table 5에서와 같이 중소기업 근무자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13.8%), 중견기업(11.7%), 대기업(9.7%), 개인사업자(3.1%), 공기업(3.1%), 의료기관(1.7%), 기타(6%)로 집계되었다. 기타는 재단법인,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등이었다.

Table 4. Respondent's working area (n=290)

division	n	%
Seoul	159	54.8
Gyeonggi-do	65	22.4
Incheon	11	3.8
other areas	55	19.0

Table 5. Respondent's workplace type (n=290)

division	n	%
small business	151	52.1
public institutions	40	13.8
mid-sized company	34	11.7
major company	28	9.7
sole proprietor	9	3.1
public enterprise	9	3.1
educational institution	8	2.8
medical institution	5	1.7
etc	6	2.1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설문조사는 목적에 맞게 표본을 잘 구성하고 있으며, 응답자는 모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 평가에 적절한 직업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될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 평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모든 프로그램은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0점 이상을 나타내고 분산(표준편차 .84~1.06)의 크기가 작으므로 응답자들은 대체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취업지원 전반적인 유용성의 평균점수도 3.76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응답자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Table 6. Usability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n=290)

division	program	M	S.D
company-linked (3.36)	college student employment contest	3.32	1.06
	establishment of employment roadmap	3.40	.96
consulting (3.63)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3.74	1.05
	focus consultation	3.51	1.03
license (4.14)	convergence training	3.91	.98
	M.V.P	4.14	.91
	certificate acquisition support project	4.36	.84
recruitment support (3.88)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for the unemployed	3.70	.95
	job accompanying project	4.03	.91
	elite program	3.94	.96
	AI mock interview	3.84	.99
special lecture (3.80)	industrial vocational school by college	3.80	1.03
	graduate employment mentoring	3.78	.99
	employment week	3.82	.85
overseas (3.84)	overseas Internship	3.92	1.06
	K-move School	3.92	.97
	overseas Employment Training Course Reserve	3.69	.98
Overall usability		3.76	.64

특히 「자격증 취득지원」(4.36), 「M.V.P」(4.14), 「취업동행 프로젝트」(4.03)은 유용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저학년 취업로드맵 수립과정」(3.32)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차원 별로 살펴보면, 자격증(4.14), 취업지원(3.88), 해외(3.84), 특강(3.80), 상담(3.63), 기업연계(3.36)의 순으로 유용성의 평균점수가 집계되었다.

4.3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KMO측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7와 같이 KMO측도는 .884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검정 유의확률은 .001이하로 나타나 요인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의 경우 17개 문항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에서 설명되는 변수의 분산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Feasi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tools

item	factor					
	1	2	3	4	5	6
D1	.768	.176	.186	.006	.145	.005
D2	.710	.074	.206	.224	.172	.214
D3	.606	.277	.314	.135	-.039	.168
D4	.442	.268	.275	.207	.260	.028
F1	.066	.887	.108	.107	.007	-.019
F2	.174	.857	.147	.115	.127	.113
F3	.315	.709	.180	.054	.099	.179
C2	.264	.103	.804	.133	.066	.040
C3	.253	.129	.756	.077	.024	.065
C1	.081	.193	.731	.010	.234	.197
E2	.071	.132	-.037	.876	.085	.010
E1	.151	.037	.271	.803	.166	.161
E3	.520	.184	.068	.556	.060	.088
B2	.009	.128	.092	.209	.856	.037
B1	.358	.043	.155	.019	.711	.225
A1	.123	.174	.171	.121	.121	.880
A2	.420	.022	.124	.110	.411	.494
Eigen value	2.550	2.376	2.225	1.955	1.666	1.268
Common Variance(%)	14.999	13.978	13.090	11.500	9.803	7.457
Cumulative Variance(%)	14.999	28.978	42.068	53.568	63.371	70.828

KMO=.884, Bartlett's $\chi^2=1918.765$ ($p<.001$)

A: company-linked / B: consulting / C: license / D: recruitment support / E: special lecture / F: overseas

다음으로 측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직교회전 방법인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적재값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항의 삭제 등 별도의 조정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수들이 측정개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이용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Table 8).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는 기업연계 항목에서 .557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탐색적 연구를 위한 분석에서 제외할 수준은 아니므로 수용하였다. 또한, 문항 수가 많으면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져 알파 계수값이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 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9]. 그 외 변수는 .646 ~ .839로 나타나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Table 8. Conceptual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tools

items	cronbach's α	questions
company-linked	.577	2
consulting	.646	2
license	.761	3
recruitment support	.766	4
special lecture	.757	3
overseas	.839	3

2)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지원-자격증($r=.574$), 취업지원-기업연계($r=.521$), 상담-기업연계($r=.504$), 해외-취업지원($r=.500$)의 변수관계에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기타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268~.493 범위에서 약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Table 9. Inter-variable correlation analysis

	A	B	C	D	E	F
A	1					
B	.504**	1				
C	.424**	.355**	1			
D	.521**	.445**	.574**	1		
E	.382**	.351**	.326**	.493**	1	
F	.338**	.268**	.402**	.500**	.333**	1

** $p<.01$

A: company-linked / B: consulting / C: license / D: recruitment support / E: special lecture / F: overseas

3)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회귀모형($F=41.37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R^2=.471$)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코헨의 기준을(.26이상)

충족하고 있었다[10].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Factors affecting the overall usability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B	S.E.	β	t	p	VIF
(constant)	.936	.200		4.678	.000	
company-linked	.229	.043	.288	5.365***	<.000	1.523
consulting	.154	.038	.212	4.065***	<.000	1.438
license	.066	.047	.076	1.397	.164	1.542
recruitment support	.048	.056	.053	.863	.389	1.973
special lecture	.214	.042	.256	5.066***	<.000	1.342
overseas	.054	.038	.070	1.397	.164	1.333

$F=41.371(p<.001)$, $R^2=.471$, $Adj.R^2=.459$, $D-W=1.818$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면, 기업연계($\beta=.288$, $p<.001$), 특강($\beta=.256$, $p<.001$), 상담($\beta=.212$, $p<.001$)은 전반적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연계와 특강, 상담 관련 프로그램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용성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검정 되었다. 그 외 자격증, 취업지원, 해외 관련 프로그램은 전반적 유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4)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F=16.091$, $p<.001$) 설명력은 50.5%로 나타났다. 분산 팽창지수(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진로상담」($\beta=.197$, $p<.001$), 「대학생 성공취업 공모전」($\beta=.189$, $p<.001$), 「취업동행 프로젝트」($\beta=.174$, $p<.01$), 「취업WEEK」($\beta=.128$, $p<.05$), 「졸업생 취업멘토링」($\beta=.119$, $p<.05$)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Table 11. Detailed Factors Affecting the Overall Usability of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Dimension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873	.209		4.177	.000	
company-linked	College Student Success Employment Contest	.117	.031	.189	3.826***	<.000	1.318
	Establishment of low-grade employment roadmap	.101	.037	.146	2.726**	.007	1.563
consulting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122	.034	.197	3.549***	<.000	1.676
	FOCUS Consultation	.046	.032	.073	1.442	.150	1.402
license	Convergence job competency training	.032	.036	.048	.882	.378	1.621
	M.V.P	.054	.043	.075	1.258	.210	1.934
	Certificate acquisition support project	-.016	.043	-.021	-.381	.703	1.673
recruitment support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for the unemployed	-.044	.039	-.064	-1.150	.251	1.687
	Job Accompanying Project	.129	.045	.174	2.856**	.005	2.010
	Elite Program	.020	.039	.030	.528	.598	1.717
	AI mock interview	-.066	.036	-.098	-1.851	.065	1.531
special lecture	Industrial vocational school by college	.043	.040	.067	1.086	.278	2.079
	Graduate employment mentoring	.078	.037	.119	2.101*	.037	1.740
	employment WEEK	.101	.043	.128	2.319*	.021	1.662
overseas	Overseas Internship	.065	.040	.105	1.634	.103	2.214
	K-MOVE School	.010	.048	.014	.201	.841	2.717
	Overseas Employment Reserve Training Course	-.021	.040	-.031	-.522	.602	1.944

$F=16.091(p<.001)$, $R^2=.505$, $Adj.R^2=.474$, $D-W=1.778$

* $p<.05$, ** $p<.01$, *** $p<.001$

5. 결론

기술통계 분석결과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5점 만점에서 3.32~4.36점 범위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용성은 3.76점으로 집계되었다. 5점 만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은 보통 수준을 의미하므로 전체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보통 이상의 유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중 4점 이상의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지원」(4.36점), 「M.V.P」(4.14점), 「취업동행 프로젝트」(4.03점)이었으며, 이들의 유용성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3.5점 이하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은 「대학생 성공취업 공모전(3.32점)」, 「저학년 취업로드맵 수립과정(3.40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점수도 비교적 낮을 뿐이며 보통 이상의 유용한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A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유용한 수준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연계, 특강, 상담의 순서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용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에서 기업연계, 특강, 상담 관련 신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전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센터는 신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기업연계, 특강,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한편, 각 프로그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개인별(학년별) 진로상담」(상담), 「대학생 성공취업 공모전」(기업연계), 「취업동행 프로젝트」(취업지원), 「취업 WEEK」(취업지원), 「졸업생 취업멘토링」(특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용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의 유용성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유용성이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개선 등 품질 관리가 필요할 경우 취업지원센터는 상기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인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중 먼저 적용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거시적 관점의 차원에 공통으로 속해있는 「대학생 성공취업 공모전」, 「졸업생 취업 멘토링」, 「개인별(학년별) 진로상담」 일 것이다.

Table 12. Factors that enhance the usefulness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Dimension	program
company-linked	College Student Success Employment Contest
special lecture	Graduate employment mentoring
consulting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본 연구는 A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 기업연계, 상담, 자격증, 채용지원, 특강 등 6개 차원과 관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취업정책 개발과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향후 효과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n. d.).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fro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Online).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1
- [2] Ministry of Education (2020). OECD Education Indicator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3]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n. d.). Employment trends for non-regular workers(Online).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 [4] J. E. Lee, Y. K. Jeong, H. M. Na & H. K. Lim(2019). A Study on Awareness and Demand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University Career Education.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1), 55-75. DOI : 10.35273/jec.2019.9.1.003
- [5] M. S. Jin, H. R. Jung & S. Y. Lee. (2010). Exploring Career Development Supporting System of 4-year Universities in Ko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1), 135-152.
- [6] K. J. Lee, E. J. Huh, S. M. Lee & S. J. Park. (2015). *Research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Improvement Plan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7] J. S. Jeong, D. Park, H. J. Ju & H. K. Sin. (2014). *A Plan to Improve College Education to Improve Employment Ability of College Graduates*. Seoul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8] Y. K. Choi. (2020). A study on satisfaction analysis of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in Korea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25(1), 137-151.
- [9] M. H. Huh. (1991). Reliability analysis of questionnaire/test item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4(1), 93-105.
- [10] J. Cohen.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남재우(Jae-Woo Nam)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 2018년 8월 ~ 2019년 7월: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현장실습센터장
- 201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현장실습교육, Data Science
- E-Mail : lisnam@kku.ac.kr

최영근(Young-Keun Choi) [정회원]



- 2004년 5월 : TEXAS A&M University, Ph.D.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경영학 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취·창업, 운영관리, 계량경영
- E-Mail : ykchoi@kku.ac.kr